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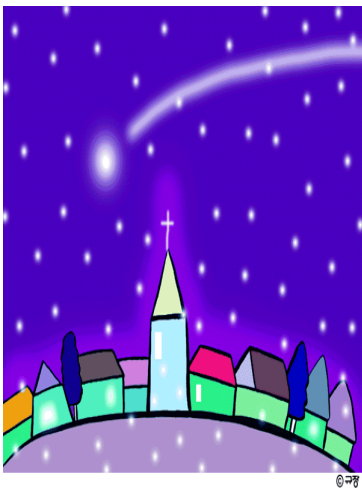
2000 12 17 !

제 44 호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고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홍	의	변	하	튼	프
이	을	화	며	정	는	
다	위	시		소		년
	한	키		년		들
!		며		들		에
				게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선물주는  
산타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아닙니다.

생명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소망의  
대림절입니다.

어느새 거리는 네온싸인의 빛으로 덮이고...  
사람들은 그 빛에 휘영청 휘청거립니다.

그 불빛에 취해 낮 놓고 같이  
휘영청 휘청거리는 자신을 봅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  
하늘을 스치는 큰 별 하나...  
그 빛에 밤경음 멈추고 생각합니다.

“ ”

당신을 기다립니다.



#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




예배는 8 45 .

## 예 배 순 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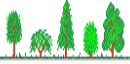
-  찬 양 ..... 찬양팀
-  중보기도 ..... 선교팀
-  기 도 ..... 학생
-  축하와 환영..... 신도배전도사님
-  말 씀 ..... |도배전도사님
-  헌 금 ..... 헌금위원
-  주기도문 ..... 신도배전도사님

 소그룹..... 모여라 !

살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 만족합니다.  
당신의 인도 선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표준새번역

개역

시편 119 :97-104

시편 119 :97-104

97. |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97. |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 :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98. :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 |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명석해졌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99. |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 |가 주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100. :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101. :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101. |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2. :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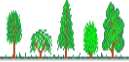
103. ,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103. :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04. :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104. :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KJV

NIV

**Psalms 119 :97~104**

**Psalms 119 :97~104**

97.O how I love thy law!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97. Oh, how I love your law!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98.Thou through thy commandments hast made me wiser than mine enemies: for they are ever with me.

98. Your commands make me wiser than my enemies, for they are ever with me.

99.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all my teachers: for thy testimonies are my meditation.

99. I have more insight than all my teachers, for I meditate on your statutes.

100.I understand more than the ancients, because I keep thy precepts.

100. 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the elders, for I obey your precepts.

101.I have refrained my feet from every evil way, that I might keep thy word.

101. I have kept my feet from every evil path so that I might obey your word.

102.I have not departed from thy judgments: for thou hast taught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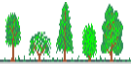
102. I have not departed from your laws, for you yourself have taught me.

103.How sweet are thy words unto my taste! yea,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103.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104.Through thy precepts I get understanding: therefore I hate every false way.

104.I gain understanding from your precepts; therefore I hate every wrong path.



### 따뜻한 마음...

2000/12/14(20:15) from 165.132.149.20  
작성자 : [DJC] : 34 , : 7

#### 요즘 참 힘들네요...

요즘 참 많이 힘들더군요 특별히 고민이되는 거나 화가 날만한일들은없었는데 그냥 기운이 없구 축쳐져서 걸어 다니고 있네여 가끔씩 지금 내가 뭐하고있던중이었지? 하고 반문하기도하지요 할일은 많은데 정신은 나사하나 빠진사람처럼 이리저리다니네요... |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옛날친구를 만났는데 참 행복해보이더군요 뭐가그리 좋은지 실실 웃는것을보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갑자기하게 되었는데 저두 참 탄사람 기분을 맞 |어서 기분이 나쁘거나 걸려도 관계를 깨거나 더커지는것이싫어서 많이 웃고다니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의미없는 웃음보다~ 정말 제감정을 마음대로 분출하고싶지만 뜻대로되지가 않는군요 요즘 귀찮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뭐가뭔지 참 답답하군요..... |럴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싶은마음이 들곤하네여~ | 아시는분은 저위해서 기도좀 해주실래여~ !르시는분들도 기도좀 부탁드려여 |대론 못견디겠네여~ 많이 힘들어하는 동은이가

2000/12/15(00:20) from 211.61.167.167  
작성자 : ...^^ (precious\_sj@hanmail.net) 조회수 : 21 , : 57

#### 동생아 보거라~

동은아.. ..??  
동생이라면서... .. |가 날 더 많이 챙기구.. ..  
그치만 동은아.. ..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게 다 그런 말이지..  
이번 수능도 그래.. ! 이제 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자너.. .. 난 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기대해.. .. !래서 무섭기도 하구.. .. 내가 전에도 썼듯이.. ..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에... !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해서... .. :론 공부로 그걸 다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  
음.. .. |실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다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구.. :이 억누르는 게 사실인걸.. ..  
그런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돼... 그걸 바루 절제라구 하는거야.. ..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물론.. ..  
그래야 할 때가 인생의 너무 많은 순간이니까..  
하나님께만 다 터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나두 하나님께조차.. .. 자꾸 숨기구.. .. 자꾸 노력하면 되는 거야.. .. 요즘 나두 정신이 없어서 기도두 못해서 미안하구.. ..^^

# 당신을 향한 노래

글 구성 : 광야소리꾼 구자림

##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한 너의 모습을  
 나는 사랑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너의 준비함이 끝나면  
 너를 나에게로 이끌리라  
 너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과  
 같으리니  
 내가 너와 동거하고  
 너는 나의 품에  
 있으리라  
 아름답게 꾸민  
 너를 사랑함이  
 영원히 다하지  
 아니하리라

## 행복한 사랑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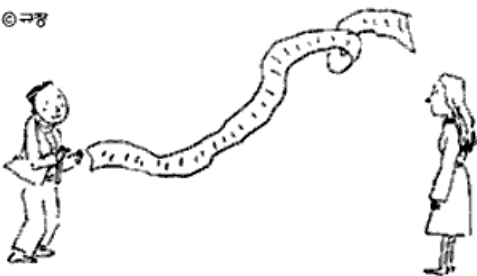
Power Praise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우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당신을 기뻐하였고 그렇게 당신을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 아름다운 만남 오래 전부터 계획하였고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기억 이 세상에서 갖게 하셨네

사랑해요 당신을 내게 주신 날부터  
 감사해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내게 주신 사랑을

© 구자림



그동안 수고해주신 손정훈 전도사님이  
양재동 청년부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가시는 길을 축복해드립니다.  
친구들도 같이 축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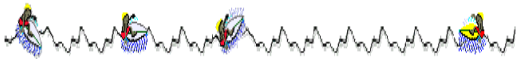
후임으로 신도배 전도사님과 권응감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친구들도 같이 환영해주세요.

가고 오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 친구들 보세요.....



- 기도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요건 해당 학생들은 오른쪽 맨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4 ( )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번주 수요일 6:30 !에 있을 세례교육 두번째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 PowerFestival  
준비중인 친구들 조금 더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금년에는 사정상 뮤지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2 ! 동안 고등부를 섬겨 주시던 손정훈 전도사님이 양재동 청년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306 !에서는 계속 볼 수 있을 거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으로는 고등부 다윗을 섬겨 주시던 권용갑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 생님들 보세요.....



- 오늘 낮 교사회의 후 1 !에 교사전체 송년모임이 ' ' . 김의득 장로님께서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오니 속을 깨끗이 비우시고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신대원 준비생 5 !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잘보셨는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도배	전도사님
손정훈	전도사님
권용갑	전도사님

**• !야소리꾼들**  
정민정, , , !은주